

콘돔을 이용한 내시경적 맥섬석 동전 제거 3예

대구파티마병원 내과 김광현※, 김대진, 류현욱, 이세영

김세환, 박창근, 이미현, 이승엽, 김현수, 이상문

최근 맥섬석 동전이라고 하는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광물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광물은 직경 2.5 cm, 두께 0.5 cm 의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져 사용되며, 치통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입에 물고 있는 방식으로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실수로 삼키게 되어 호흡기나 소화관 내 이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직경이 커서 식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맥섬석은 방사선 투과도가 높아 단순방사선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병력에서 맥섬석 이물 섭취가 의심될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상부위장관 내시경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부소화관이물은 대부분 자연 배출되거나 자연 배출되지 않은 경우 천공, 출혈, 폐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크기가 클 경우 이차적으로 기관을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내시경적 제거를 필요로 한다. 맥섬석 동전은 표면이 매끄러워 겹자나 올가미, 바스켓 등으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본 증례들에서는 콘돔을 이용하여 특별한 합병증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저자 등은 콘돔을 이용한 이물 제거술의 안전성과 합병증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콘돔을 이용하여 맥섬석 동전을 내시경으로 제거한 3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위 점막하 종양 양상을 보인 해면상 혈관종 1예

관동의대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조지훈*, 최창환, 박일운, 감창우, 한기준, 조현근, 오하은*

서론 : 해면상 혈관종은 신체의 어느 부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종양으로 성인의 경우 피부에 호발하며 소아에서는 두경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내장기관에서는 주로 간에서 발생하며 간 이외의 장기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해면상 혈관종은 소장이 가장 빈도가 높으며 대장, 직장 순으로 호발한다. 위에 발생하는 해면상 혈관종은 위에 발생하는 종양 중 약 0.05%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양성경과를 보이나 간혹 지속적인 출혈에 의한 철 결핍성 빈혈이나 대량 출혈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위점막하 종양 양상을 보인 해면상 혈관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9세 여자 환자가 2주전부터 시작된 심와부 통증을 주소로 개인의원에 방문하여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시행 받고 위에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 없었고,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80 mmHg, 체온 36.6℃, 맥박수 62회/분, 호흡수 20회/분 이었으며 신체검사상 경도의 심와부 압통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다.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5,100/mm³, 혈색소 12.5g/dL, 혈소판 179,000/mm³ 으며 생화학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다.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에서 위체부 후벽에 약 2.0 cm 크기의 점막하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상부소화관 내시경초음파검사상 위체부 후벽의 점막하층에서 기원하여 고유근층까지 침윤되어 있는 균질한 저에코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적 점막하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상 한 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다양한 크기의 확장된 혈관들이 관찰되어 해면상 혈관종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내시경적 점막하 종양 절제술 시행 후 출혈 등 특별한 합병증 없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